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내용은 몇 번에 걸쳐 영화화 되었다.

지금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80년 광주의 아비규환 같았던 당시 상황을 비슷하게 재현하거나 그것들을 고발하는데 집중했다면 영화 '26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5월 광주를 이야기한다.

80년 5월,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이것은 사실 영화적으로 대단히 직접적인 표현이자 고발이다. 실제로 이 영화가 제작되기까지 몇 년의 세월과 위기를 겪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 사람'을 까놓고 이야기를 진행한 원작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닌가 싶다.

영화는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영화 '26년' 중 모차르트 '교향곡 제25번'

현실은 훨씬 더 끔찍하다!

5월 광주에서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남은 자들이 '그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 벌이는 사상 초유의 암살 프로젝트. 원작자인 강풀은 광주 시민을 대신해서 상상속의 치밀한 복수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미리 말하자면 영화의 결말과 원작 만화의 결말은 다르다. 다름의 이유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화와 원작이 따로 존재할 수 있는 생존 방식이 아닐까 싶다.

영화가 끝나며 엔딩 타이틀이 오르면 의외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K.183)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의 선율이 극장 안을 가득 메운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봤던 이들이라면 이 곡이 '아마데우스'의 오프닝 시퀀스에서 등장한 음악이라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다.

모차르트는 총 41개의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단조의 조성을 가진 교향곡은 단 두 곡 만들었다. 바로 25번과 40번. 특히 25번 교향곡은 영화 '아마데우스' 사운드트랙에 힙입어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는데, '천재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듯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흐르는 멜로디, 어색함과 튀는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성과 화성의 완벽한 조화로 4악장까지 단번에 감상하게 만든다.

어찌되었든 이후에 수많은 작곡가들이 수많은 음악을 발표해왔지만, 그 누구도 모차르트 음악의 완성도와 아름다운 선율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자.

모차르트 교향곡 25번은 우선, 네빌 매리너 지휘 성 마틴 인 더 필즈 오케스트라 연주를 추천하고 싶다. 이 녹음은 영화 '아마데우스'의 사운드트랙으로도 활용되었는데, 실제 연주도 아주 좋다. 네빌 매리너가 수족처럼 부렸던 오케스트라의 응집력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연주다.

하지만 필자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연주는 말러의 애제자였던 지휘자 브루노 발터와 컬럼비아 심포니의 54년 녹음이다. 이 녹음에서의 컬럼비아 심포니는 뉴욕 필과, MET 오페라 오케스트라, NBC 심포니의 단원들로 구성된 레코딩 전문 오케스트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컬럼비아 심포니(LA의 단체)와는 다른 뉴욕의 악단이다.

이상하게도 발터가 지휘한 25번은 템포가 빠른데도 보다 격렬한 슬픔과 비장함이 느껴진다. 마치 슬픔 사이를 질주하는 듯한 연주다. 다른 연주를 들을 때와 달리 발터의 녹음을 들을 땐 영화보다 현실이 훨씬 끔찍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26년'의 가슴 아픈 영상이 아닌 진짜 비극과도 같은 그날의 실제 사진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 괴로웠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2012 문화계 결산 ① 미술

광주비엔날레·미디어아트… 굵직한 전시 풍성

201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광주·전남 문화계는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제 9회 광주비엔날레가 화려하게 펼쳐졌고 광주 세계아리랑축전 등 새로운 축제도 관객들을 만났다. 올해 지역 문화계를 돌아본다.

'아트광주' 구색맞추기성 비판… 차별화 마케팅 필요

진시영·이이남·손봉채·미테우그로 등 활약 돋보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미술축제인 제 9회 광주비엔날레가 66일간 광주 곳곳에서 펼쳐져 국내외 미술계의 이목이 쏠렸다. 사진은 마이클 주의 '분리불가' 작품.

올 한 해 지역 미술계는 광주비엔날레, 아트광주, '미디어아트 2012' 등 굵직한 전시 등 어느 때보다 볼거리가 많았던 한 해였다. 중앙 무대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지역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도 미술계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지역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가 가득한 한 해였음에도, 미술계 양극화와 극심한 경기 침체의 여파는 여전한 한 해였다.

◇**비엔날레 홍수, 차별화 과제 떠안은 광주비엔날레**=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미술축제인 제 9회 광주비엔날레가 66일간(9월 7일~11월11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무각사·대인시장·광주극장 등에서 열렸다.

전 세계 미술애호가들의 주목을 받는 40개국 92명(팀)의 '스타' 작가들 작품을 광주 전역에 펼쳐놓은데다, 아시아로 옮겨오는 세계 미술계 트렌드를 반영, "아시아 대표미술제에 걸맞는 전시"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비엔날레 20년을 앞두고 국내에만 10개가 넘는 비엔날레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아시아 대표적 미술제로, '광주비엔날레'만의 확고한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과제로 떠올랐다.

◇**아트 광주, 존폐 위기 극복하나**=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내걸었던 아트광주 12(9월 5~9일)는 지역 작가들을 작품을 국내외 미술계에 적극 소개하는 장터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구색맞추기성' 행사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34개에 이르는 아트페어가 열리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거나 해외 컬렉터를 끌어오기 위한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홍보·마케팅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럴거면 차라리 없애라"라는 혹평도 받았다.

급기야 광주시는 '아트광주' 사업을 광주문화재단에 맡기는 게 아닌, 별도의 팀을 꾸려 추진키로 결정한 상태여서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굵직한 현대미술 대가 기획전 러시**=광주비엔날레를 계기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획전도 잇따라 눈길을 끌었다. 대형 기획전은 광주시립미술관이 주도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의 경우 개관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전 '두개의 모더니즘', '진통' 전과 함께 '점'과 '선'으로 세계적 화가가 된 작가 이우환(76)씨의 작품 세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를 열어 지역 미술계의 관심을 끌었다.

70년~80년대의 '점'과 '선', '바람' 시리즈, 90년대 초부터 시작한 '조응'을 타이틀로 삼은 연작 시리즈, 2000년대 '대화(Dialogue)'를 주제로 한 신작까지 이씨 작품을 한 자리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로, 35점의 이씨 작품을 소장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보유한 미술관에 걸맞은 기획전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외 시립미술관은 중국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15명의 작품 42점을 대상으로 한 'Ctrl+N·비선형적 실행'전, 미국 사회적 리얼리즘의 대표작가 '벤 샨'전 등을 진행하는 등 굵직한 기획전으로 지역민들에게 시각이미지 갈증을 해소하는데 힘썼다.

◇**지역 작가, 활발한 활동**=열악한 미술시장에도 불구, 수도권 상업갤러리와 전속계약 체결, 해외 아트페어 참가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등 지역 젊은 작가들의 활동은 귀중한 성과로 꼽힌다.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씨는 최근 서울 진화랑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상업 갤러리를 통해 중앙 화단에 본격 진출했다. 지난 1972년 10월 개관, 올해로 40년을 맞은 진화랑은 한국 화랑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프랑스 피악(FIAC)에 참가하는 등 국내 미술계 1세대를 이끈 대표적 화랑이다.

이이남씨도 아시아 최대 아트페어로 발돋움한 홍콩 '아트HK'에서 작품을 선보이는가 하면, 홍콩 중심가 콰이풍힌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씨는 또 런던 올림픽 기간 국가브랜드위원회 주최 행사에 참여, 영국 런던에서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설치작가 손봉채씨도 독일 베를린 마이클 슈츠갤러리에서 '이주민'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 초대전을 갖고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현지 미술계에 소개하는 등 지역 미술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대인시장 내 대안예술공간인 미테우그로가 태국 수도 방콕에 'ZONE D' 라는 창작 예술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젊은 작가·기획자들의 해외 미술계 진출을 위한 첫 발을 뗀 것도 긍정적 성과다.

이외 광주시가 추진중인 '폴리(Folly) 프로젝트'도 시민들 삶 속에 녹아내리는 공공시설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어 시민참여형 폴리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스토리텔링으로 만난다

'광주일백년 Ⅰ' 개정증보판 발간… 26일 출판기념회

광주에 대해 궁금할 때면 사람들이 펼쳐보는 책이 있다. 광주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박선홍 선생의 저작 '광주 일백년'이다.

1994년 발간된 '광주 일백년 Ⅰ' 개정 증보판이 나왔다. 이번 발간은 지난 6월 박선생이 광주문화재단에 '광주일백년(전3권)'과 '무등산'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기증한 데 따른 후속작업으로 이뤄졌다.

'광주 일백년'은 개화기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광주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한 광주 역사의 기록본이다.

총 350쪽 분량으로 묶여 나온 '광주일백년 Ⅰ' 개정증보판은 새로운 디자인과 풍부해진 내용으로 채워졌다.

기존 저작에'계몽기의 선각자들' 목차를 추가, 여성지도자인 김필례, 민족교육의 선각자인 양태승, 계몽운동가이며 불우이웃의 어버이인 정인세의 이야기를 새로 담았다.

또 '지역경제 이야기' 목차에는 전남 근대화 운동과 본촌·송암 이후의 공업단지 등 광주권 생산도시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했다.

출판 기념회는 오는 26일 오후4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열리며 축하공연과 함께 저자 사인회, 도서 증정 깜짝 이벤트도 마련된다. 문의 062-670-74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